

# Colle St. Lucia 성당과 돌로마이트



알프스의 6월. 봄꽃이 만발해서 낮엔 따스한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해발 4000ft의 산중 새벽 공기는 겨울처럼 차가웠다. 두꺼운 옷을 끼워 입고는 해 뜨기 한참 전부터 기다려야 했는데 구름이 낮게 깔린 흐린 날씨 때문에 더 춥게 느껴졌다. 그나마 마을의 가로등이 성당을 비추고 있어 마음을 녹일 수 있었다.

작은 골짜기를 사이에 둔 성당 건너편 언덕 도로변에는 벌써 부지런한 사람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날이 희뿌연게 밝아오기 시작하면서 가로등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멀리 만년설이 덮인 Pelmo 바위산 위로 두꺼운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고 산밑의 Caprille 마을은 아직 새벽잠에 들어있다.

해가 뜨면 이 모든 광경은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연출 될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다.

성당은 Santa Lucia 마을 언덕 위에 오롯이 서서 수많은 날들을 지켜오고 있었다. 1347년에 설립된 이 지역에서 가장 작은 성당이지만 지역의 주요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 지금도 마을 주민들의 신앙 생활에 중요한 공간으로 유지되고 있다. 종탑은 17세기에 번개로 무너졌다가 18세기에 좀더 높게 재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성당 밖 해시계의 프레스코화에는 1606년의 날짜가 또렷이 새겨져 있다. 내부에는 세인트 루시아에게 헌정된 제단, 황동 램프와 촛대 등 대부분 18세기부터 내려온 물건들이라고 한다. 이 작은 성당이 이렇게 오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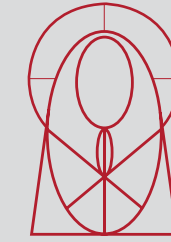
세월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신앙으로 이어져오는 이곳 주민들의 삶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Santa Lucia 마을 주민은 약 400여명. 얼마 안되는 우리 이민 교회의 역사와 신앙생활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Santa Lucia 마을이 있는 Dolomite는 이태리 북부 알프스에 있는 높은 산봉우리 군으로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며 여름에는 등산 하이킹, 겨울에는 스키 리조트로 일년내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깊고 높은 산중 임에도 교통편이 잘 발달 되어있어 방문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사진과 글 변태용 요셉



연중  
제 11주일  
2023년  
06월 11일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다.  
< 마태오9,36-10,8 >

###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탈출기 19,2-6ㄱ
- # 화답송      시편 147(146-147),12-13,14-15,19-20ㄱ,ㄷ(© 12ㄱ)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6-11
- # 복음 환호송      마르 1,15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 복음      마태오9,36-10,8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다.>
- # 성가번호      입당 16      봉헌 342      성체 504      파견 77

## 성당 소식

🌸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 미사지향 (연미사)

- 권숙자(요안나) - 최 세레나
- 이석중(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최예생 - 김 스텔라
- 소형덕(베드로) - 가족
- 최남순 - 박화성(헬레나)
- 김인순 - 한상철(빈첸시오) 가족
- 심정섭(수산나) - 가족
- 임철중(사도요한), 임수권 - 가족
- 허복(요한) - 가족
- 류형렬 - 백상현(요셉) 가족
- 오계택(바오로), 이한영 - 오은주(로사)
- 본당의 돌아가신 아버님들 - 썸머셋 구역

### 미사지향 (생미사)

- 이용범(사도요한) 신부님 - 사목회, 메타천 구역
- 윤석로(이나시오) 부제님 - 사목회, CLC카도너, 먼로구역, 메타천 구역, 피스브릿지 구역, 김순옥(올리아)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방상호(요한) - 임 안나
- 방진숙(테레사) - 임 안나
- 뜨거운 성령대회를 위하여 - 성령기도회
- 김순옥(올리아) 생일 축하 - 황태진(필립보) 가족
- 정영선(플로라) - 이서형(요안나)
- 성경숙 - 이막동(아네스)
- 추해웅(오스틴) - 가족
- 하준석(마태오) - 김순옥(올리아)
- 하연승(요한) 가족 - 김순옥(올리아)
- 서영원, 서경희(피아) - 맹 베로니카
- 이정화 - 백상현(요셉)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 김효근(다미아노), 김경근(이나시오)
- 황태진(필립보) - 한상철(빈첸시오) 가족
- 정 마이클 - 한상철(빈첸시오) 가족
- 임문수(마르코) - 가족
- 변태용(요셉) - 가족
- 박락준(베드로) - 박서진(사무엘), 김리오(레오)
- 김성일(베드로) - 김리오(레오)
- 메타천 구역 형제님들 - 히 아나스타시아
- 이호용(프란치스코) - 히 아나스타시아
- 오용운(토마스아퀴나스) - 오재현(미카엘), 오채영(크리스티나)
- 이승권(요한) - 오재현(미카엘), 오채영(크리스티나)
- 추승호(비오) - 가족
- 채희백(바오로) - 쟈마, 요안나/스테파노, 사무엘/헬렌
- 본당의 아버님들 - 썸머셋 구역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51명)..... \$1,262
- 2차헌금 (유틸리티)..... \$708
- 교무금 ..... \$3,050

김순옥(4-6)      김동근(7-12)      백원선(4-6)  
이호용(6-7)      이대우(5-6)      변태용(4-9)

### 2023 Bishop's Annual Appeal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2023년 목표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5/26까지 약정 금액은 \$38,909.14 (105.16%)입니다. 목표액 \$37,000에서 \$1,909.14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2차 헌금

- 7월 9일: 유틸리티

🌸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구역별 친교 봉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매월 첫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 준비된 간식/차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봉사 당번: 7/2 노스브런스워 8/6 렛거스

### 매일미사책 1년 구독 신청 (2023년 8월 - 2024년 7월)

- 일반 매일미사 90분 / 대형 매일미사 120분
-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함과 구독 비용을 봉투에 넣으셔서 주일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사제관 메일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 신청 마감: 7월 2일(주일)
- 문의: 사무장 732-258-5998

### 읽어 드립니다.

- 주제: 예비자 교리서 이어서.
- 일시: 6월 20일(화) 저녁 8시 30분
- 줌 링크: <https://www.zoom.us/j/7323561037>
- Passcode: 1111
- 6/27 부터 당분간 쉽니다.



### 금주의 평일미사

- 일시 및 장소: 6/22 (목) 오전 11시 경당
- 6/29 부터 당분간 쉽니다.

### 기획분과회의

- 일시 및 장소: 7월 2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올드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6월 18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노스에디슨 구역모임

- 일시: 6월 18일(주일) 미사 후 1시
- 장소: 이광호(다니엘) 형제님 댁 54 Preston St. Edison, NJ 08817

### 사우스브런스워 구역모임

- 일시: 6월 24일(토) 오후 6시 30분
- 장소: 손영수(유스티노) 형제님 댁

### 요셉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6월 25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 곽 올리안나      방진숙(테레사)

### 사무실 하계 휴가

- 6/23 - 7/9 까지 사무장 휴가로 인해 사무실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사무장에게 전달하실 감사헌금, 교무금, 미사지향 신청 예물등은 봉헌금과 함께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사무장이 휴가 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지사항

# 성당 건물 관리를 위하여, 주일 한국어 미사 후에는 엘리베이터 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밖에서 잠글 예정입니다. 성당 문단속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가 끝나고 오후 1시 이후에는 정문 사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정문이 잠겨져 있을 경우에는 다른 출입문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번역

### 제1독서: 탈출기 19,2-6ㄱ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곳 산앞에 진을 쳤다.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6-11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마태오 복음 9,36-10,8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과 세리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대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에우차리교구 공회

###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축복이란 무엇인가요?

축복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아버지이자 창조주인 하느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